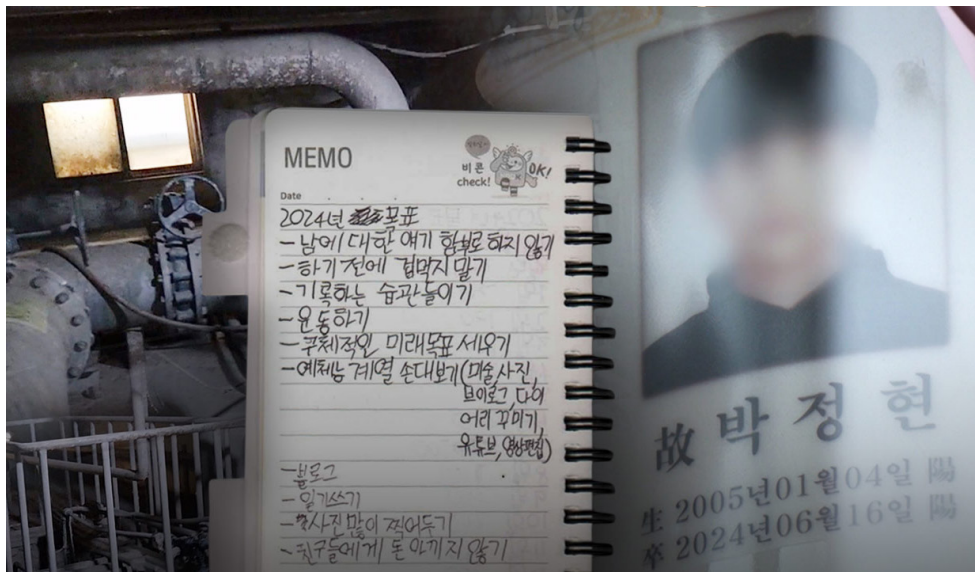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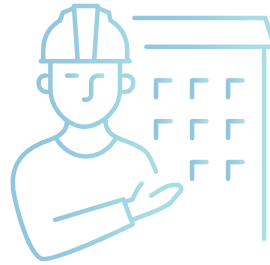


박정현에게



MBC

원석진 기자



순천 추모공원 벚나무들이 꽃잎을 펼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만 남도의 봄별을 찍고 바닷바람을 맞으면 벚꽃은 연분홍으로 앞뜰을 물들일 것이었다. 스무 살 박정현도 그랬다.

교복을 막 벗고 일터로 왔다고 해도 옛된 얼굴이었다. 특성화고를 다닌 박정현의 성적은 상위권이었다. 치우가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전주에 있는 제지회사를 택했다.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를 주말마다 볼 수 있는 직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 기숙사에 머물며 자신의 다짐들을 수첩에 꼭꼭 눌러 적었다. 남 애기 함부로 하지 않기, 친구들에게 돈 아끼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않기. 자신이 속한 ‘조성파트’ 네 글자를 앞세워 회식 장소에서 외칠 건배사도 준비했다. 파트에서 에이스가 되겠다는 말도 거기서 나왔다.

첫 월급은 여러 봉투에 담았다. 공장에서 밤을 지새워 일하며 처음으로 손에 쥔 돈이었다. 버킷리스트였을까. 어머니와 이모들에게 수줍게 흰 봉투를 건넸다. 또래보다 몸집은 작았지만 속은 남해바다만큼 넓었다. 봉안당에서 취재진과 만난 큰이모와 작은이모는 조카의 영정 앞에서 장마 같은 울음을 쏟아냈다.

재작년 여름, 박정현은 비좁고 캄캄한 배관실에서 쓰러져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건강했고 지병도 없었다.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그는 쓰러진 지 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쓸쓸한 죽음이었다. 유독가스를 마셨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다. 그의 장례는 이십여 일 뒤에야 치러졌다.

황망히 자식을 잃으면 삶은 기약 없이 중단된다. 세월호와 이태원, 그리고 산재로 숨진 수많은 ‘김용균’의 부모들은 멈

취선 시간 앞에서 절망했다. 8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스물네 살 노동자 김용균. 다정하고 살가운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그가 남들처럼 나이를 먹고 결혼해서 평범히 살길 바랐다. 그래서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아들 낳고 살면 얼마나 좋은지 겪어보라”는 말을 때마다 건넸다. 존재만으로도 행복을 주는 아들이었는데, 일별 없이 떠났다.

박정현의 어머니도 그랬으리라. 그는 친밀한 혈육과 왕래를 끊었다. 우울과 슬픔이 뿌영게 뒤섞인 집 안에서 그저 우두커니 살았다. 그러다 가끔 시내에 나갈 때면 어김없이 마을버스 차창 밖으로 아들을 봤다. 이제 갓 성인이 된 이름 모를 아이들의 면면엔 지나간 시절들이 파노라마처럼 현상됐다. 그 장면을 상상하다 나의 세 살배기 아들이 겹쳐졌다.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제 이름을 말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진짜 진짜 엄마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아가. 십수 년 전 박정현도 꼭 그랬을 것이다. 엄마의 기억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2026년 4월1일, 박정현은 세상을 떠난 지 21개월 만에 산재를 인정받았다. 그의 산재 심의를 앞두고 기사를 썼지만 결국 판단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내렸



故 박정현 씨가 마지막으로 신고 있었던 신발



故 박정현 씨가 홀로 쓰러진 전주페이퍼 배관실

다. 옳고 인간적인 결정이었다. 어머니는 다시 아들을 볼 수 없지만 비로소 아들을 보내줄 순 있을 것이라고, 유족은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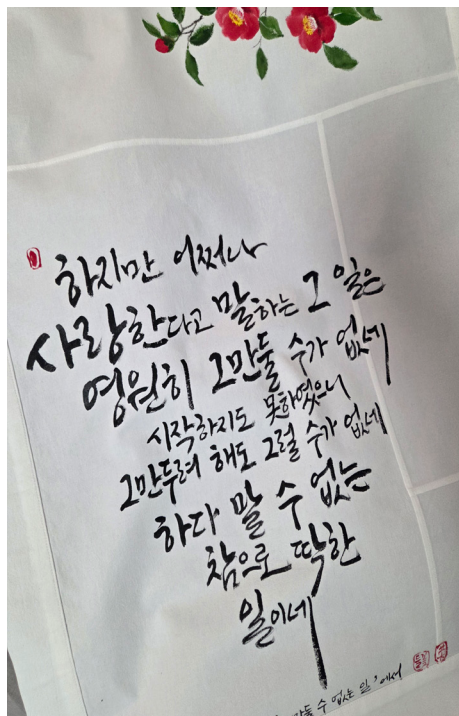
박정현의 어머니 곁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장대비를 함께 맞았던 김현주 활동가는 얼마 전 내게 캘리그라피 글귀를 하나 보내왔다. 내가 친애하는 심재휘 시인의 시구였다.

하지만 어쩌나 /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일은 / 영원히 그만둘 수가 없네 / 시

2026 기자의 세상보기



故 박정현 씨의 3살 무렵 초상화



김현주 활동가가 보내온 캘리그래피 글귀

작하지도 못하였으니 / 그만두려 해도 그
럴 수가 없네 / 하다 말 수 없는 / 참으로
딱한 일이네

〈그만둘 수 없는 일 - 심재휘〉

과분한 시였다. 나는 곧장 감사 인사
를 전했다. 그랬더니 한 문장이 돌아왔다.

“누군가에게는 언론 노동자의 시선이
한줄기 햇살이 되고, 숨 쉴 수 있는 공기
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부박한 기사는 햇살과 공기가 될

수 있을까. 박정현의 다짐을 다시 생각해
다. 하기 전에 겁먹지 않기, 그가 용기를
준다. 나는 그에게 어떤 말을 돌려줄 수
있을까.

눈부신 봄날, 아들은 훨훨 날아가고
엄마의 시간은 다시 강물처럼 흐르길. 이
따금 엄마는 봄꽃에 내려앉은 흰나비를
보며 사랑한다 속삭이던 아들의 얼굴을
그려보시길. 그리고 더 이상 서로를 연민
하고 걱정하며 애꿎지 않기를. 나는 용산
행 KTX 안에서 살며시 기도했다. 🙏

MBC 원석진 기자